

노동정책연구
2022. 제22권 제4호 pp.1~28
한국노동연구원
<http://doi.org/10.22914/jlp.2022.22.4.001>

연구 논문

코로나19 재난 시기의 청년층 임금격차 : 상대적 분포분석 활용

이성호*
민인식**

본 연구는 상대적 분포분석을 응용하여 2016~2021년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로부터 코로나19 재난 시기 청년 근로자의 임금분포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점 간 임금분포 분석결과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청년 근로자들에게서 전반적인 소득감소와 같은 부정적 충격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하위계층의 양극화 심화 현상이 전반적인 양극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시점 내 임금분포를 살펴보면 청년 근로자들 사이에서 성별, 사업체 규모별, 학력별 임금격차가 크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각 그룹 내에서의 양극화 현상은 남성, 대기업, 대졸 이상 집단에서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극화는 각 그룹의 저임금 근로자들이 전반적으로 더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시기 청년들의 모험과 도전을 위한 정책 마련의 필요성과 더불어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층의 양극화 및 임금불평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연구와 정책적 논의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핵심용어 : 코로나19 위기, 임금격차, 상대분포분석, 양극화지수

논문접수일: 2022년 7월 25일, 심사의뢰일: 2022년 8월 4일, 심사완료일: 2022년 9월 27일

* (제1 저자)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박사과정(lsh3680@khu.ac.kr)

** (교신저자)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imin@khu.ac.kr)

I. 서론

2020년 1월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사회 모든 계층은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적응해 가고 있다. 2021년 하반기 하루 확진자가 60만 명을 넘어서는 위기도 있었으며, 2022년 하반기에도 재유행 조짐을 보이면서 여전히 코로나19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전문가는 코로나19의 종식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¹⁾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경제주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노동시장·근로환경 변화는 코로나19 시기를 살아가는 청년층이 직면한 부정적 충격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고용충격은 메르스(MERS)와 사스(SARS)의 전염병 충격은 물론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당시의 충격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김유선, 2020).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대졸 취업률은 65%로 지난 10년 내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시장에 나서야 할 청년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한파로 사회에서 나아가야 할 자리가 좁아졌음을 의미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하는 20~30대 청년의 체감고통지수는 2020년과 2021년 기존 최고치를 연속 갱신하고 있다.

노동시장에서 고용과 실업 문제 외에도 코로나19는 청년층에 충격을 줄 수 있다. 기성세대보다 연차가 낮고 상대적으로 저임금 근로자인 경우가 많아 코로나19와 같은 외생적 충격으로 발생하는 소득충격에 더 취약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과 직업훈련의 축소는 젊은 세대의 자기개발과 발전 기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에 국제노동기구(ILO)는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세대를 ‘봉쇄세대(lockdown generation)’라고 부르며 그 위험성을 주시하고 있다(ILO, 2020).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층이 직면한 경제 상황은 청년 개인 삶에 미

1)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소장은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코로나 완전 종식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WHO는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비상사태 종료를 검토하면서도, 코로나의 종식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치는 부정적 영향뿐 아니라 사회계층 전체의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로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외생적 충격은 취약계층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이병희, 2007; 김태경 외, 2020). 김진현(2021)은 청년층의 소득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신뢰수준을 매개로 청년층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코로나19 이후 양극화 논란은 직접적인 고용충격뿐 아니라 청년층의 정신건강 악화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코로나19 이후 청년 노동시장 이슈가 주로 청년실업과 같은 고용문제에 집중했으며 이미 취업해 있는 청년 임금근로자에 미치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다수의 청년은 상용근로자이며(최영준, 2022),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층은 임금근로자로 취업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청년 임금근로자의 노동환경 변화, 임금격차 그리고 양극화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층 근로자의 소득분포와 불평등 정도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Jann(2021)의 상대분포 접근법은 준거그룹이나 준거시점을 기준으로 비교그룹(또는 비교시점)의 분포 변화를 도식화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대분포 접근법을 활용하여 코로나19 충격 이전과 이후 시점의 상대분포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양극화지수를 도출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청년층 임금분포의 양극화 정도를 측정하고자 한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경제충격과 불평등, 임금격차에 대한 최근 선행연구를 정리한다. 제Ⅲ장에서는 실증분석에 사용할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와 연구대상 그리고 분석방법론을 요약한다. 제Ⅳ장에서는 청년층 임금분포 변화와 양극화 추이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제Ⅴ장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결론과 시사점을 제안한다.

Ⅱ. 연구배경과 선행연구

1. 코로나19와 경제충격

코로나19 팬데믹 발생은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을 심화시킬 우려를 낳고 있다

(World Bank, 2022). 본 장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경제충격과 임금격차·불평등을 다룬 선행연구를 정리한다.

코로나19는 고용충격뿐 아니라 국내 소비지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연간 지출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확산기 소비지출의 감소는 2006년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완중(2021)은 소비지출의 변화가 소득 변화에 따른 것보다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비경제적 요인에 의한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다. 코로나19 직후 소비성향 하락은 소득분위별 자체의 소비성향(consumption propensity) 하락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코로나19 직후 급변한 고용충격과 소비감소는 점차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나, 고용변화는 부문별로 변화 양상이 다르고 경제활동 참가율은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하회하고 있어(김완중, 2021; 오삼일 외, 2021; 황수빈·이종하, 2022),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에 대한 장기적이고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코로나19는 국가재정 및 금융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재정적자가 100조 원을 넘어섰으며, 국가채무는 240조 원이 증가하였다. 일부 산출방식에 따르면 금융 사이클 진폭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과적으로 금융시장 불안정이 우려되고 있다(이정연·홍준선, 2022).

경제위기 등에서 발생하는 노동시장의 악화는 사회 내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감염병 확산과 경기침체, 금융위기와 같은 사건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충격은 경제주체에게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Hoynes et al., 2012; World Bank, 2022). 이병희(2007)는 외환위기 이후 소득불평등과 상대적 빈곤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코로나19 영향 역시 그 충격과 회복 영향이 경제주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다양한 연구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ILO, 2021).

코로나19와 불평등에 관한 선행연구로 Dang and Nguyen(2021)은 Oaxaca-Blinder 분해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6개 국가 자료로부터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충격이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심각하고 따라서 코로나19가 성별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음을 분석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경제적 손실에 대한 성별 불평등이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국내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자료의 활용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어 대유행 이후 자료를 활용한 연

구의 필요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종사자별로 살펴보면 자영업자 집단은 상용근로자에 비해 소득 감소와 빈곤 증가가 나타났다(남재현·이래혁, 2020). 임금근로자의 경우 비정규직 임금근로자가 정규직과 비교해 노동시간이 더 축소되며, 임금격차는 더 커진 것으로 분석되었다(황선웅, 2020; 이용관, 2021). 이상의 연구결과들은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은 취약계층에 더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2. 포스트 코로나 시대 청년 임금격차 요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현재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을 넘어 청년들이 직면한 임금격차와 양극화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절에서는 우리나라 청년층 임금격차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본다.

국내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청년층 임금격차의 설명요인으로 성별, 학력, 기업 규모를 들 수 있다. 우선, 성별 임금격차와 관련하여 김수현·이정아(2021)에 따르면 2009~2019년 근로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별 임금격차는 금융위기 이후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임금 구조효과에서 비롯되는 성별 임금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코호트별로 구분하면 30대 코호트에서는 성별 임금격차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남규·윤자영(2021)은 2004~2020년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25~34세 대졸 청년들을 대상으로 성별 임금격차를 분석하였는데, 2015년 이후 그 격차가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우리사회에는 성별 차이로 설명되지 않는 효과로 인한 임금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진·김의준(2016)은 2004~2013년 한국교육고용패널 자료로부터 사회초년기 대졸 임금 프리미엄이 고졸 대비 14.8%이며, 대학 교육으로 인한 보상 및 신호효과(signaling effect)가 임금격차의 81.8%를 설명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권혜자·이혜연(2019)은 직업이동경로조사 2014년 자료로부터 대졸 청년 대기업 임금프리미엄이 22.8~26.4%, 중견기업의 임금 프리미엄은 7.2~11.6%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하면 코로나19와 같은 경제적 충격은 전반적인 노동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그 효과는 경제주체마다 다를 수 있어 불

평등·양극화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 이는 사회초년생으로서 상대적으로 사회경험과 축적된 자산이 적은 청년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여전히 성별·교육수준별·사업체 규모별 임금격차가 존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다양한 연구의 필요성을 볼 수 있다.

3. 연구 의의 및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 분포분석을 활용하여 코로나19를 살아가는 청년층의 임금분포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코로나19와 경제충격을 연구하는 것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불확실성과 또 다른 팬데믹 충격을 대비해야 하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더 나아가 불평등은 감염병 확산과 금융위기와 같은 사건 그 자체보다는 경제 내 구조적 요인에 의한 기여가 더 크다는 결과도 있어(World Bank, 2022), 코로나19 한가운데서 살아가는 경제주체의 상대적 분포와 그 위치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방법론적으로 Jann(2021)의 연구에서 제시된 상대적 분포분석을 활용한다. 국내연구로는 윤자영 외(2014)에서 1990~2013년 임금분포의 상대적 위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중산층의 몰락 정도와 양극화 현상 등을 연구한 바 있다. 상대적 분포분석은 확률분포 함수로부터 분위수(quantiles)를 이용하여 두 시점 간 또는 두 그룹 간 상대적 위치를 직관적이고 시각적으로 제시하면서도, 중위 상대양극화지수(MRP) 등의 지수로부터 양극화 현상을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Alderson and Doran, 2013; Jann, 2021). 상대적 분포분석은 소득 분포로부터 불평등과 양극화 현상 등을 분석한다는 측면에서 로렌즈곡선과 지니계수와 유사하다. 다만, 로렌즈곡선과 지니계수는 단일그룹 내의 임금 불평등, 양극화 현상 등을 제시하여 두 그룹의 분포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룹별로 분석을 통해 그 결과를 비교하여야 하지만, 상대적 분포분석은 기준그룹과 비교그룹을 설정하여 두 그룹 간 임금분포의 상대적 위치를 한 평면 내에서 직접적으로 비교하고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다(Handcock and Morris, 1998).

Ⅲ. 연구방법

1. 분석자료와 대상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해 통계청에서 조사·발표하는 2016~2021년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조사시점 간 임금분포를 비교할 뿐 아니라 시점 내 성별, 교육수준별 그리고 사업체 수준별 상대적 임금분포 차이를 분석한다. 분석대상으로는 만 19세부터 만 39세까지의 청년 상용근로자를 표본으로 선택한다. 우리나라에서 청년의 정의는 정책 방향에 맞게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데, 청년기본법에서는 만 34세까지를 청년으로 보지만,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다수의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통하여 만 39세까지 청년으로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는 보다 넓은 범위의 청년을 분석범위에 포함시키고자 청년을 만 39세까지로 정의하고 2030세대를 분석대상으로 선택한다.

<표 1>에서는 2016~2021년 청년 상용근로자의 표본 수를 정리한다. 매년 취업 상태의 변화,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상용근로자 전환 등의 이유로 상용근로자 수가 변동하는 점을 고려한다.

<표 1> 연도별 청년 상용근로자 인원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6,512명	6,454명	6,235명	5,800명	5,747명	5,584명

<표 2>에서는 코로나19 이전 시점에 해당하는 2019년 및 코로나19 이후 시점에 해당하는 2020~2021년 그룹별 청년 상용근로자 표본을 정리한다. 성별로 구분하면 여성 표본은 42~43%를, 남성은 57~58%를 차지하고 있다. 교육수준별로는 대졸이상의 표본이 76~77%로, 사업체 규모별로는 300명 미만 회사에 재직 중인 경우가 79~80%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임금측정은 ‘최근 3개월간 주된 직장에서 받은 월평균 임금’ 문항을 이용한다. 다만, 우리사회 제도 내

〈표 2〉 2019~2021년 그룹별 청년 상용근로자 표본

		대상자(명, %)		
		2019	2020	2021
성별	여	2,490(43%)	2,441(42%)	2,399(43%)
	남	3,310(57%)	3,306(58%)	3,185(57%)
교육수준	대졸 미만	1,382(24%)	1,394(24%)	1,296(23%)
	대졸 이상	4,418(76%)	4,353(76%)	4,288(74%)
사업체 규모	300명 미만	4,616(80%)	4,543(79%)	4,445(80%)
	300명 이상	1,184(20%)	1,204(21%)	1,139(20%)
전 체		5,800명	5,747명	5,584명

청년층 근로자 임금분포 분석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월평균 단위로 환산하였을 때 연도별 법정 최저임금 이하인 표본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한다.2)

2. 분석방법

가. 상대분포 접근법(relative distribution analysis)

청년층의 2016~2021년 동안 전년 대비 임금의 상대분포와 2021년 시점 내 그룹 간 임금의 상대분포를 추정하기 위해 상대분포 접근법을 사용한다. 상대분포 접근법의 기본적 아이디어는 준거그룹의 분포(reference distribution)와 비교그룹의 분포(comparison distribution)의 상대적 위치를 분석하는 방법론이다(Hancock and Morris, 1998; Alderson and Doran, 2013; Jann, 2021).

먼저 준거그룹의 소득분포를 의미하는 누적분포함수를 $F_i(y)$ 로 쓰고, 비교그룹의 소득분포를 나타내는 누적분포함수를 $F_j(y)$ 라고 정의하자.

$$F_i(y) = \Pr(Y_i \leq y) \text{ 준거그룹의 소득분포 함수} \quad (1)$$

$$F_j(y) = \Pr(Y_j \leq y) \text{ 비교그룹의 소득분포 함수} \quad (2)$$

2)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적용되는 최저임금 기준 월 급여는 2016년 126만 270원, 2017년 135만 2,230원, 2018년 157만 3,710원, 2019년 174만 5,150원, 2020년 179만 5,310원, 2021년 182만 2,480원이다.

상대분포 접근법에 따르면 준거그룹 분포 y 에 대한 상대적 순위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text{상대순위(relative rank)} R = F_i(y) \tag{3}$$

준거그룹 소득분포함수에서 특정한 소득 y 값의 상대적 순위를 R 이라고 하면 $0 \leq R \leq 1$ 의 값을 갖는다. 해당 소득 y 를 비교그룹 소득분포상에서 측정하였을 때 상대순위는 분위함수(quantile function)를 이용하여 표현할 수 있다.

$$G(r) = F_j(y) = F_j(F_i^{-1}(r)) \tag{4}$$

두 시점 간 분포 변화가 없다면 $F_j(y) = F_i(y)$ 가 되어 상대순위 $R = G(r)$ 이 되고 $R - G(r)$ 평면에서도 45도 직선상에 위치하게 된다. 준거그룹 소득분포에 비해 비교그룹 소득분포가 오른쪽으로 이동했다면(비교그룹이 준거그룹보다 소득이 전체적으로 높아졌다면) $F_j(y) < F_i(y)$ 가 되고 따라서 $R - G(r)$ 평면상에서 45도 직선 아래에 위치하게 된다. 반면 비교그룹의 소득분포가 낮아졌다면 $F_j(y) > F_i(y)$ 가 되고 $R - G(r)$ 평면의 45도 직선 위에 위치하게 된다.

상대순위 $G(r)$ 의 확률밀도함수(Probability Density Function : PDF)는 Chain-rule에 의해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식 (5)에서 $f()$ 는 기준(준거)그룹과 비교그룹의 임금분포 PDF를 의미한다. $F^{-1}()$ 는 기준그룹과 비교그룹의 임금분포 CDF의 역함수이고 따라서 분위함수가 된다.

$$g(r) = \frac{dG(r)}{dr} = \frac{\partial G(r) / \partial F_i^{-1}(r)}{\partial r / \partial F_i^{-1}(r)} = \frac{f_j(F_i^{-1}(r))}{f_i(F_i^{-1}(r))} \tag{5}$$

상대분포 $g(r)$ 의 값은 확률밀도함수이기 때문에 $0 < g(r) < \infty$ 의 값을 갖는다. 두 그룹의 소득분포 모습이 같다면 $g(r) = 1$ 의 값을 갖게 되며 $g(r) \sim \text{Uniform}[0, 1]$ 가 된다. 준거그룹의 소득분포가 높은 경향이 있다면, 낮은 r 에서는 $g(r) > 1$ 이며 높은 r 일수록 $g(r) < 1$ 의 값을 가지게 된다. 반대로 비교그룹의 소득분포가 높은 경향이 있다면, 낮은 r 에서는 $g(r) < 1$ 이며 높은 r 일수록 $g(r) > 1$ 의 값을 가지게 된다. 준거그룹과 비교그룹 분포 간 형상

차이(shape effect)에 따라 $g(r)$ 이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는데, 비교그룹의 양극화 현상이 심할수록 양극단의 꼬리 값에서 $g(r) > 1$ 의 경향을 나타낸다.

나. MRP 지수(Median Relative Polarization Index)

MRP(Median Relative Polarization) 지수는 앞 절에서 논의한 $g(r)$ 을 준거그룹의 중앙값 소득 비율로 조정된 후 두 그룹의 상대분포함수 $g_m(r)$ 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MRP(F_j; F_i) = 4 \int_0^1 \left| r - \frac{1}{2} \right| g_m(r) dr - 1 \quad (6)$$

두 그룹의 중앙값의 비율을 조정된 소득분포가 같다면 $g_m(r)$ 은 균등분포가 되고 MRP=0의 값을 갖는다. 준거그룹에 비해 비교그룹에서 양극화가 심하면 MRP는 양의 값(+)을 가지게 되고, 비교그룹의 양쪽 꼬리 부분이 증가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준거그룹의 양극화가 심하면 MRP는 음의 값(-)을 갖게 되며, 비교그룹에서는 분포의 중심으로 수렴한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MRP는 식 (7)~식 (8)과 같이 소득분포의 아래쪽(Lower Relative Polarization : LRP)과 위쪽(Upper Relative Polarization : URP)으로 나누어 전체 변화에 이바지한 정도를 분해할 수 있다. 즉, 소득분포의 하향부분과 상향부분 중 어느 쪽이 양극화에 큰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할 수 있다.

$$LRP(F_j; F_i) = 8 \int_0^{1/2} \left| r - \frac{1}{2} \right| g_m(r) dr - 1 \quad (7)$$

$$URP(F_j; F_i) = 8 \int_{1/2}^1 \left| r - \frac{1}{2} \right| g_m(r) dr - 1 \quad (8)$$

본 연구에서는 식 (4)와 식 (5)에 해당하는 청년 상용근로자들의 시점 간, 시점 내 임금분포 현황을 분석한다. 식 (6)~식 (8)을 이용하여 코로나19 시대 청년 임금근로자들의 양극화 현상을 분석한다. 자료 분석을 위한 통계패키지로 Stata 17버전을 활용한다.

IV. 실증분석 결과

1. 코로나19 전후 상대분포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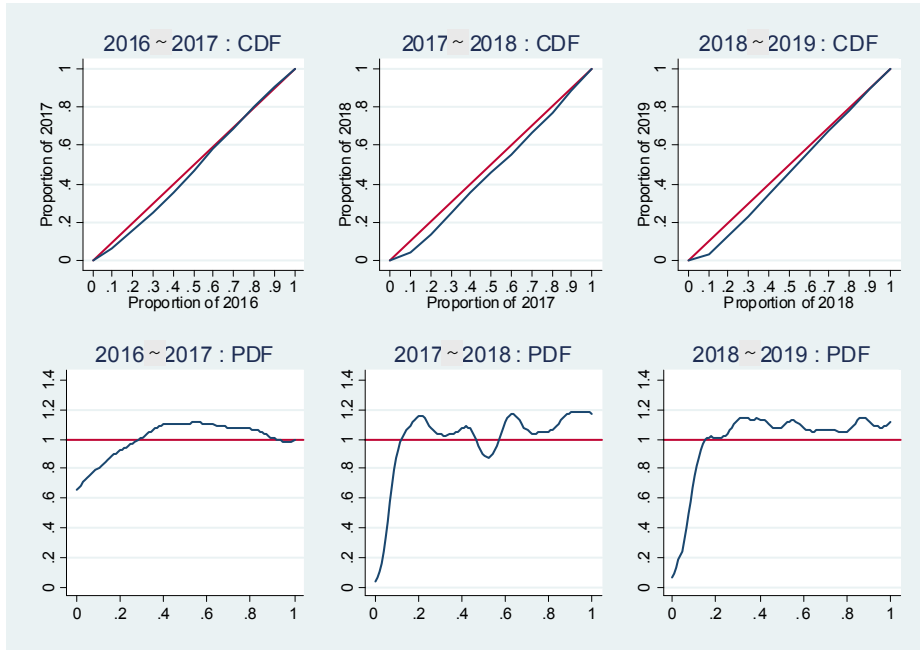
가. 코로나19 이전 상대분포 분석결과

본 소절에서는 코로나19 위기가 발생하기 이전 시점에서 청년층 임금분포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림 1]에서는 2016~2019년 동안 청년 임금근로자의 전년 대비 상대분포 변화를 그래프로 보여준다. 준거그룹은 1년 전 시점이고 비교그룹은 현재 시점으로 설정한다. 식 (4)와 식 (5)에서 제시한 상대순위의 누적분포함수(CDF)와 확률밀도함수(PDF)를 그린 결과이다. 이하 모든 분석에서 횡단면 개인 가중치를 적용하여 결과를 얻었다.

연도별 CDF는 모두 유사한 함수 형태를 나타낸다. 세 그래프 모두 45도 직선 아래에 위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소득이 전체적으로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연도별 PDF 역시 모두 유사한 $g(r)$ 함수 형태를 보여준다. 낮은 순위인 r^{low} 에서는 상대밀도(relative density)가 1보다 낮고 높은 순위인 r^{high} 에서는 상대밀도가 1보다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매년 청년 상용근로자의 임금분포가 오른쪽으로 이동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2017~2018년과 2018~2019년 $g(r)$ 에서 하위 20%에 해당하는 r 에서 상대밀도는 1보다 훨씬 낮은 값이다. 이는 2017년 이후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은 2018년 16.4%, 2019년 10.9%의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정책은 임금 하위계층에 속하는 임금근로자의 상대적 위치를 유효하게 상승시켰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2016~2019년 전년대비 상대분포(relative density)



<표 3>에서는 전년 대비 10%, 50%, 90%에서 상대분포 모습을 정리한다. 2018년 하위 10% 임금인 150만 원은 2016년에는 하위 6.67%로 낮아진다. 즉

<표 3> 전년 대비 10%, 50%, 90%의 임금의 상대 분포

2016년 소득분포	소득(만 원)	2017년 상대분포
10%	150	6.67%
50%	240	46.73%
90%	400	90.26%
2017년 소득분포	소득(만 원)	2018년 상대분포
10%	165	3.65%
50%	250	45.85%
90%	400	88.24%
2018년 소득분포	소득(만 원)	2019년 상대분포
10%	180	2.94%
50%	250	45.59%
90%	400	89.27%

전년 대비 하위 10% 임금수준이 높아졌음을 예상한다. 2016년 중위 임금인 240만 원은 2017년 46.73% 위치에 불과하다. 2016년 90% 위치에 속하는 400만 원은 2017년 90.26%에 위치한다. 상위계층에서는 임금수준이 전년과 비슷한 상대적 위치에 분포함을 알 수 있다. 2018~2019년 비교했을 때도 유사한 결과이다. 2018년 하위 10% 위치에 있는 180만 원 임금지급은 2019년에는 하위 2.94%에 위치한다. 2018년 중위임금인 250만 원은 2019년에는 45.6% 임금수준에 불과하다. 2018년 상위 90% 임금인 400만 원은 2019년에는 89.27%에 위치한다. [그림 2]의 2017~2018년과 2018~2019년 비교에서 임금 하위계층에서 $g(r) < 1$ 이라는 것은 <표 3>에서 2017~2018년(3.65%)과 2018~2019년(2.94%) 결과로 확인할 수 있다. 즉 기준연도 10% 위치보다 훨씬 낮은 위치에 분포한다.

<표 4>는 상대분포에서 위치효과(location effect)를 제거한 후 얻은 MRP 지수를 제시한다. 제Ⅲ장 2.나절에서 논의하였듯이 지수가 양의 값을 가지면 양극화가 심화되고 음의 값을 가지면 양극화가 완화되었음을 의미한다. MRP 지수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전년 대비 음의 값을 가지며,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는 양극화 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즉 1년 전 시점에 비해 양극화가 유의하게 완화되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양극화의 완화는 하위 50%에서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위 50%의 LRP 지수는 모두 음의 값이며 0과 유의하게 다르다. 반면 같은 기간 상위 50%에서는 오히려 양극화 현상이 유의하게 강화되어 나타난다.

<표 4> MRP 지수(Median Relative Polariz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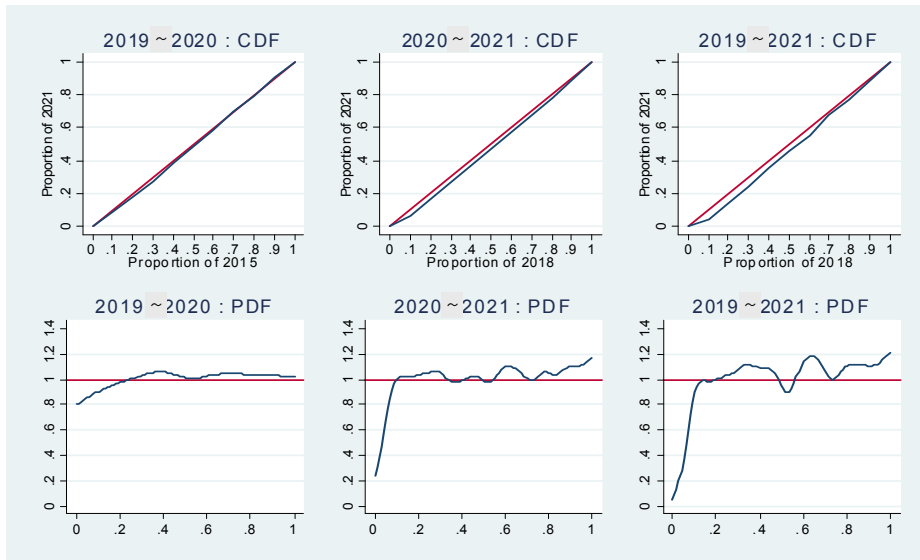
	2016~2017	2017~2018	2018~2019
MRP	-0.0591***	-0.0378***	-0.0149
LRP	-0.1549***	-0.1982***	-0.0101
URP	0.0366**	0.1226***	-0.0197

주: ***, **, *는 1%, 5% 그리고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나. 코로나19 이후 상대분포 분석결과³⁾

코로나19 이전 시점인 2019년을 기준시점으로, 코로나19 이후인 2020년과 2021년을 비교시점으로 설정한 임금수준의 상대분포 결과는 [그림 2]에서 제시한다. 코로나19 이전 시점과 유사하게 코로나19 충격에도 불구하고 2020년의 상대분포는 전년도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2019~2020년 상대 CDF(식 4로 계산) 비교에서는 45도선 아래에 위치한다. 이는 2019년 임금분포보다 2020년 임금분포로 전체적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PDF(식 5로 계산)로 상대분포를 판단할 때 낮은 분위 r 에서는 1보다 작고 높은 분위 r 에서는 1보다 크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만 1년이 넘어서는 2021년 시점과의 비교에서도 역시 상대분포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코로나 발생초기인 2020년에 비해 상대분포는 전년도에 비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2] 2019~2021년 상대분포 : 임금수준



3) 본 연구는 청년들의 월평균 임금 변수를 이용한다. 코로나19 전후 근로시간이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당 근무시간’ 변수를 통해 월 40시간으로 환산한 임금지 분석 결과를 부록에서 제시한다. 분석결과가 월평균 임금 변수를 활용한 본문의 논의와 방향성이 일치하여 이에 대한 논의는 지면제약상 생략한다.

<표 5>에서는 2019년과 2020년 특정 분위 임금이 2020년, 2021년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계산한 결과이다. 2019년 하위 10%에 해당하는 190만 원은 2020년에는 7.86%에 위치한다. 하위 그룹의 임금수준이 상승했음을 예상한다. <표 3>의 2018~2019년 상대분포 비교에서 하위 10%(2018년)가 2019년에는 하위 2.94%에 위치한 것과 비교하면 2019~2020년에는 상대적으로 하위 임금 계층의 급격한 임금상승은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상위 10%인 410만 원 임금은 2020년에는 상위 9.9%에 위치한다. 상위 그룹의 임금수준은 코로나 19 이전과 비교해 그 상대 위치가 달라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표 5> 2019년 대비 10%, 50%, 90%의 임금의 상대 분포

2019년 소득분포	소득(만 원)	2020년 상대분포
10%	190	7.86%
50%	260	48.94%
90%	410	90.09%
2020년 소득분포	소득(만 원)	2021년 상대분포
10%	200	6.1%
50%	260	47.24%
90%	405	88.56%
2019년 소득분포	소득(만 원)	2021년 상대분포
10%	190	3.94%
50%	260	46.07%
90%	410	88.7%

<표 6>에서는 상대분포에서 위치효과(location effect)를 제거한 후 계산한 MRP 지수를 제시한다. MRP 지수는 전체적으로 양(+)의 값을 가진다. 즉 코로나19 이후 전년대비 청년층 임금분포는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양극화에 기여한 임금계층은 상위계층보다는 하위계층인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상위 50%의 양극화지수에 해당하는 URP 지수는 음의 값(-)으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즉, 상위 50% 그룹에서는 양극화가 오히려 완화되었음을 의미하는데, <표 5>에서 상위 10%의 경우 그 상대적 위치가 크게 변하지

〈표 6〉 MRP 지수(Median Relative Polarization)

	2019~2020	2020~2021	2019~2021
MRP	0.0380**	0.0316	0.0686***
LRP	0.1557***	0.1038***	0.2247***
URP	-0.0796***	-0.0406**	-0.0873***

주: ***, **, *는 1%, 5% 그리고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않았던 결과와 동일하다. 반면 LRP 지수는 양으로 모두 유의하다. 그 결과 전체적 양극화지수인 MRP 지수가 양의 값(+)으로 나타난다. 하위 50% 그룹에서 주도적으로 양극화 심화가 이루어졌으며 청년층 전체 임금분포 양극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코로나19 발생 후인 2020년과 2021년 시점의 비교에서는 URP 지수와 LRP 지수가 상쇄되어 전체적인 MRP 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코로나19의 충격이 임금분포 상위 청년 근로자보다는 하위 근로자의 양극화에 더 기여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즉 상대적으로 취약 계층에게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더 크게 미친다는 결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상의 상대적 분포분석 결과는 코로나19 이후 청년 근로자의 전반적인 소득 감소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하위 임금분포의 영향에 의해 불평등이 심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경제충격이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 불평등 심화 우려와 관련한 우리나라 청년 근로자들의 양극화 심화 현상에 대한 실증적인 결과를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청년에게 소득불평등은 우울 등 정신적 삶의 질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전반적인 임금 수준의 감소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양극화 심화 현상이 청년들이 체감하는 경제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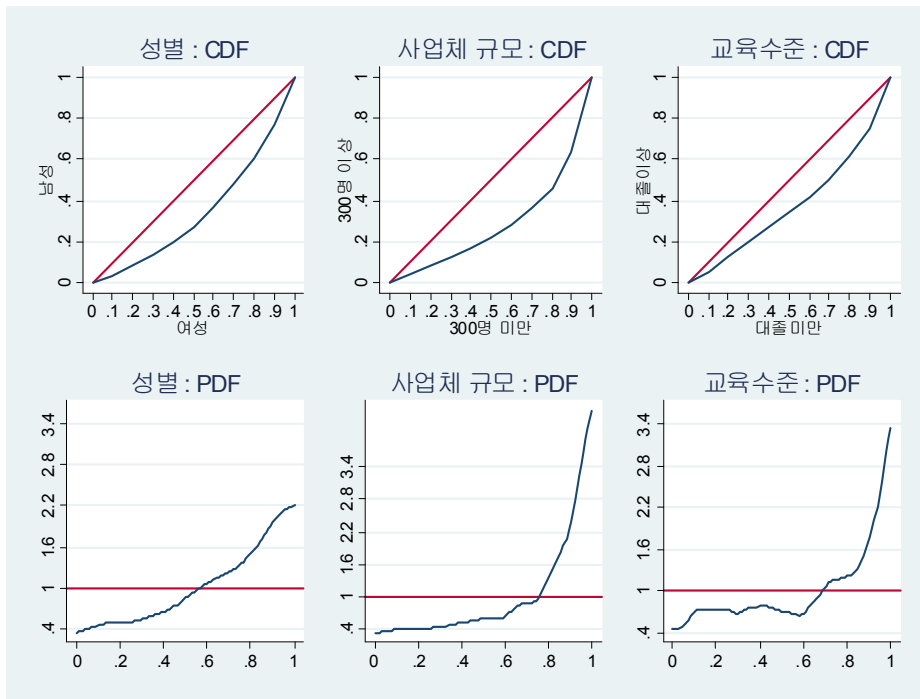
2. 코로나19 이후 시점 내 그룹별 상대적 분포 분석결과

본 소절에서는 코로나19 이후 2021년 시점 내 관찰된 청년층 임금분포를 세부 그룹별로 살펴보고자 한다.⁴⁾ 먼저 성별은 여성 임금근로자를 준거그룹, 남

성 임금근로자를 비교그룹으로 설정하여 상대분포를 계산한다. 사업체 규모의 경우에는 300명 미만 기업체 임금근로자를 준거그룹, 300명 이상 기업체 임금근로자를 비교그룹으로 설정한다. 학력그룹의 경우, 대졸 미만 임금근로자를 준거그룹, 대졸 이상 임금근로자를 비교그룹으로 설정한다.

[그림 3]의 상대 CDF 그래프를 살펴보면 3개 그룹에서 비교그룹의 CDF가 45도선 아래에 위치한다. 즉 여성에 비해 남성의 임금수준이 전체적으로 높다. 사업체 규모가 300명 미만인 기업 근로자에 비해 사업체 규모가 300인 이상인 근로자의 임금분포가 상대적으로 더 높다. 대졸이상 학력자 임금분포가 대졸미만 학력자에 비해 더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청년층 임금분포는 시점 내에서 성별, 사업체 규모, 교육수준에 따라 임금격차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성별, 사업체 규모별, 교육수준별 상대분포(2021) : 임금수준



4) 코로나19 재난 첫 해인 2020년 시점 내 상대분포도 분석하였지만 지면제약상 생략한다.

상대 PDF 그래프에서도 3개 그룹 모두 낮은 임금분위에서는 1보다 작고 높은 임금분위에서는 1보다 큰 값으로 주어진다. 비교그룹에서 임금분포가 전체적으로 우측으로 이동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특히, 준거그룹과 비교그룹의 상대적 위치 차이가 시점 간 상대적 위치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림 2]보다 [그림 3]이 큰 것을 볼 수 있다. 코로나19 발생과 같은 특정 사건의 발생으로 인한 임금격차, 불평등 심화보다 우리 경제 내 구조적 요인에 의한 임금격차가 더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7>에서는 2021년 성별, 사업체 규모별, 교육수준별 3개 그룹의 10%, 50%, 90% 상대분포를 수치로 제시한다. 2021년 여성의 하위 10% 소득인 200만 원은 남성의 상대분포에서 약 3.59%에 불과하다. 사업체 규모 측면에서 중소기업 근로자의 하위 10% 임금은 대기업 근로자의 3.68% 위치에 해당한다. 대졸미만 그룹의 10%에 위치한 임금은 대졸이상 그룹에서는 5.28%에 위치한다. 중위소득 기준으로 남성은 여성에 비해 50만 원, 300명 이상 기업체 종사자는 300명 미만 기업체 종사자에 비해 100만 원 그리고 대졸이상 임금근로자는 대졸미만 임금근로자에 비해 30만 원 정도 임금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성별, 사업체규모별, 교육수준별 10%, 50%, 90% 상대분포(2021)

여성 소득	소득(만 원)	남성 상대분포
10%	200	3.59%
50%	250	26.56%
90%	375	77.23%
300명 미만 사업체 소득분포	소득(만 원)	300명 이상 사업체 상대분포
10%	200	3.68%
50%	250	22.28%
90%	400	63.36%
대졸 미만 소득분포	소득(만 원)	대졸 이상 상대분포
10%	200	5.28%
50%	250	34.64%
90%	350	74.43%

앞 절의 논의와 마찬가지로 <표 8>에서 MRP 지수를 제시한다. 분석결과 성별, 사업체 규모별, 교육수준별 MRP, LRP, URP 양극화지수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3개 그룹 중 성별그룹의 양극화지수가 가장 작고 사업체 규모의 양극화 지수가 가장 크다. 코로나19 이후 시점인 2021년에 300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임금 양극화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LRP와 URP 지수가 모두 양으로 유의하다. 공통적으로 URP에 비해 LRP에서 양극화에 더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 그룹에 비해 남성 그룹에서 양극화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임금 남성 근로자 계층이 양극화에 더 크게 기여하고 있다. 300명 미만 사업체 종사자에 비해 300명 이상 사업체 종사자 그룹에서 양극화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과 마찬가지로 300명 이상 사업체에서 종사하는 저임금 근로자 계층이 양극화에 더 크게 기여하고 있다. 대졸미만 그룹에 비해 대졸이상 그룹에서 양극화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졸이상 그룹 내에서 상대적으로 저임금 근로자 계층에서 양극화에 더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재난 시기 그룹별 양극화가 존재하며, 고임금 근로자보다는 저임금 근로자 계층의 양극화에서 비롯됨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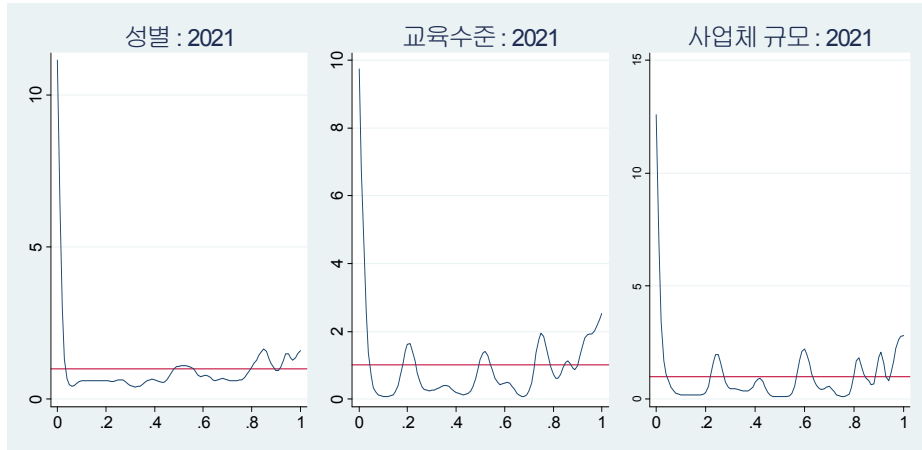
<표 8> MRP 지수(Median Relative Polarization)

2021	성별	사업체 규모별	교육수준별
MRP	0.2388***	0.3717***	0.3277***
LRP	0.3707***	0.4881***	0.4482***
URP	0.1069***	0.2553***	0.2073***

주: ***, **, *는 1%, 5% 그리고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그림 4]에서는 그룹 내 상대분포를 비교할 때 위치효과(location effect)를 통제한 상대적 PDF를 시각적으로 제시한다. 여성 그룹보다 남성 그룹의 양극단에서 1보다 큰 값을 갖는다. 상대분포의 양극단에서 1보다 크다는 것은 준거그룹에 비해 비교그룹의 양극화가 심화됨을 뜻한다. 특히 하위 10%에서 상대분포 PDF 값이 1보다 매우 크다는 것은 하위 그룹이 임금양극화에 더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 즉 2021년 임금분포에서 여성에 비해 남성의 임금격차가 심화됨을 의미한다.

(그림 4) 성별, 사업체 규모별, 교육수준별 상대 임금분포(위치효과 통제)



교육수준 그룹과 사업체 규모 그룹에서도 같은 양상으로 나타난다. 권혜자, 이혜연(2019)은 남성과 대기업 집단에서 임금 프리미엄이 저임금 분위보다는 고임금 분위에서 높은 것으로 분석해 고임금 근로자일수록 보이지 않는 생산성 차이나 유리천장 등 차별적 요소에 의한 격차 가능성을 시사한다. 대졸자 집단 내에서 역시 교육의 질에 따른 인적자본의 격차가 커질 수 있다. 4년제 대졸자 하위 20%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자에 비하여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와 같은 이른바 ‘교육거품 현상’은 대졸자 집단 내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이주호 외, 2014). 상대적으로 고임금 계층에 해당하는 남성, 300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대졸자 집단 내에서 저임금 계층과 고임금 계층의 임금 프리미엄 차이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나라 사회에는 성별, 교육수준별, 기업규모별 상대적인 임금격차가 존재함을 시사한다. 이는 Oaxaca-Blinder 분해법이나 회귀분석 방법을 통해 그룹 간 임금격차를 연구한 국내 다수의 선행 연구결과와 그 방향성이 같다. 또한, 코로나19 전후 임금의 상대적 격차보다 시점 내 그룹별 상대적 격차가 크게 존재한다는 것을 [그림 2]와 [그림 3]을 통해 직관적으로 볼 수 있다. 코로나19와 경제충격으로 인한 불평등·양극화 문제보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 요인에 의한 그룹별 격차가 더 크게 존재함을 시사한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상대분포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코로나19 위기를 통과하는 청년층 임금근로자의 임금분포 변화를 분석하였다. 특히 코로나19 이전 시점과 비교하여 청년층 임금 양극화가 발생하였는지, 발생하였다면 어떤 임금 계층에서 더 크게 기여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6~2021년까지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시점 간 청년 상용근로자 상대적 소득분포의 모습과 이로부터 MRP 지수를 계산하여 청년층 근로자의 임금 양극화 정도를 계량화하였다. 둘째, 코로나19 이후 시점인 2020년, 2021년 시점에서 청년층 근로자의 성별, 교육 수준별, 사업체 규모별 상대적 임금분포의 모습과 소득 양극화 현상을 분석하였다.

시점 간 임금분포 분석결과, 청년 상용근로자는 코로나19 충격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월평균 소득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 비해 2020년에 청년층 임금 양극화가 심화되었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얻었다. 특히 LRP 지수로부터 하위 50%의 양극화 심화가 전반적인 양극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의 부정적 충격은 소득 상위 청년보다는 하위 청년계층에 더 크게 작용하여 임금격차가 오히려 벌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2020년 및 2021년의 시점 내 임금분포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청년층 근로자들에게서 성별, 사업체 규모별, 교육수준별 임금격차가 크게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그 정도가 시점 간(2019~2020년, 2020~2021년 비교) 임금격차보다 큰 것으로 확인된다. 둘째, 남성, 300명 이상 사업체, 대졸 이상이 각각 여성, 300명 미만 사업체, 대졸 미만과 비교해 임금수준이 전체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양극화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은 여성보다 임금분포가 전체적으로 오른쪽에 위치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안에서의 양극화는 여성보다 심한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각 그룹에서 심화된 양극화는 상대적으로 저임금 근로자가 더 크게 기여하고 있다.

연구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 시기 청년 상용직 근로자들의 전체적인 임금분포는 소폭이나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소득감소 같은 부정적 영향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빈곤에의 부정적 영향이 상용직보다는 자영업자에게 두드러진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남재현·이래혁, 2020). 통계청이 발표한 현세대 청년의 직업선호도에 따르면, 창업 등의 모험보다는 대기업, 국가기관 등 안정적 직장에 대한 선호도가 뚜렷함을 볼 수 있는데, 코로나19 충격 효과는 이러한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속에서 청년창업과 같은 모험과 도전을 장려하기 위한 세심한 지원 방안 마련 그리고 청년들이 위기 속에서도 목표를 위해 도전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코로나19와 같은 충격 발생 때 양극화 해소를 위한 다각화된 연구와 정책적 마련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소득분포의 양극화가 심화하였으며, 특히 임금 하위계층에서 양극화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의 소득불평등 심화는 그 경제적 결과뿐 아니라 우울 등 정신적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김진현, 2020),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층의 양극화 및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연구와 효과적인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의 시점 간 소득분포 차이보다는 시점 내 성별, 교육수준별, 사업체 규모별 임금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등과 같은 사건 그 자체로 인한 임금격차보다 사회 내 구조적 요인에 의한 임금격차가 큰 것으로 볼 수 있어, 경제주체의 그룹 간 임금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과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에서 주요 분석자료로 2020년과 2021년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월평균 임금 자료를 이용하였는데,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소득효과를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본격적인 코로나19 유행에 앞서 임금협상이 이루어져 해당 연도의 임금이 결정될 수도 있으며, 임금경직성으로 코로나19 발생 즉시 단기간에 임금 조정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

이다.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시대 청년들의 소득분포와 양극화 현상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2020년과 2021년 시점 내 청년 근로자들이 직면한 임금격차를 상대분포를 통하여 분석하였으나, 코로나19를 받아들이는 정도는 개인별, 산업별로 다를 수 있다. 더구나 코로나19 시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맞물려 있어, 개인별·산업별로 코로나19 충격에 적응하는 패턴이 이질적이라고 가정하는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 또는 멀티레벨 모델(Multilevel Model)을 활용한 코로나19 효과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 제도 내의 청년 근로자를 분석대상으로 하고자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시장 이탈 및 법정 최저임금 미만 청년층을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는데, 노동시장 이탈 및 최저임금 관련 이슈는 후속 연구에서 계속될 필요가 있다.

이상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청년 근로자 소득의 상대적 위치와 양극화 현상을 분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방법론적으로 회귀모형에 기초한 계수해석에 의존하는 대신 청년 임금근로자의 상대적 임금분포 특징을 시점 간 그리고 시점 내에서 분해(decomposition)하여 이를 시각적으로 나타내고, 이를 통해 준거그룹과 비교그룹 사이의 양극화 현상을 분석하였다. 청년층 임금분포에 대한 다양한 방법론적 연구 가능성을 확인하였다는 것은 본 연구의 학술적 기여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교육부(2021). 2020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 구남규·윤자영(2021). 「대졸 청년층 성별 임금격차 변화와 요인분해분석」. 산업노동연구 27 (2) : 5~40.
- 권혜자·이혜연(2019). 「대기업집단 및 중견기업의 임금 프리미엄 : 대졸 청년층을 중심으로」. 노동정책연구 19 (1) : 1~28.
- 김수현·이정아(2021). 「금융위기 이후 성별 임금격차 변화 분석 : 분위별, 연령대 코호트별 성별 임금격차」. 여성경제연구 18 (1) : 23~60.

- 김완중(2021). 「COVID-19 이후 소비지출 변화와 요인 분석: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와 비교」. 경제연구 39 (3) : 107~140.
- 김유선(2020). 「코로나 위기와 4월 고용동향」. 한국노동사회 연구소, ISSUE PAPER 제129호(2020-10호).
- 김진현(2021). 「청년이 인식하는 소득불평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자본의 매개효과」. 보건사회연구 41 (2) : 38~100.
- 김태경 · 정희창 · 정선영(2020). 「코로나19관련 거시경제 주요 이슈에 대한 논의 및 시사점」. 한국은행(BOK) 이슈노트 2020-8호.
- 남재현 · 이래혁(2020). 「코로나19의 영향은 모두에게 동등한가? - 종사상 지위별 소득과 빈곤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72 (4) : 215~241.
- 오삼일 · 송효진 · 이종하(2021). 「코로나19 이후 고용재조정 및 거시경제적 영향」.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 제2021-31호.
- 윤자영 외(2014). 「중산층 형성과 재생산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이병희(2007). 「노동시장 불안정이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경제발전연구 13 (2) : 211~238.
- 이용관(2021). 「코로나19가 임금근로자의 노동조건에 미친 영향- 고용형태별 차이를 중심으로」. 노동경제논집 44 (2) : 71~90.
- 이유진 · 김의준(2016). 「청년층의 대졸 임금 프리미엄 분석」. 노동정책연구 16 (3) : 1~25.
- 이정연 · 홍준선(2022). 「최근 우리나라 금융사이클의 상황 및 특징평가」.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 제2022-12호.
- 이주호 · 정혁 · 홍성창(2014). 「한국은 인적자본 일등 국가인가?: 교육거품의 형성과 노동시장 분석」. KDI FOCUS 제46호.
- 최영준(2022). 「MZ세대의 현황과 특징」. 한국은행(BOK) 이슈노트, 2022-13호.
- 통계청(2021). 청년이 선호하는 직장(13~34세 인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LA020R&conn_path=I2.
- 통계청(2021). 『2020년 연간 지출 가계동향조사 결과』.
- 한국경제연구원(2021). 「21년상, 청년 체감경제고통지수 27.2, 15년 집계 이후

최고 수준」. KERI 보도자료(2015. 11. 14.)

황선웅(2020). 「코로나19 충격의 고용형태별 차별적 영향」. 산업노동연구 26 (3) : 5~34.

황수빈·이종하(2022).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동참가율 변동요인 분석 : 경제위기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 제2022-5호.

Alderson, A. S. and K. Doran(2013). “How Was Income Inequality Grown? The Reshaping of the Income Distribution in LIS Countries”. in Gornick, J. C and M. Jäntti(eds). *Income Inequality : Economic Disparities and the Middle Class in Affluent Countries*. Stanford University Press. pp.51~74.

Dang, Hai-Anh H. and C. V. Nguyen(2021). “Gender Inequality During the COVID-19 Pandemic : Income, Expenditure, Savings, and Job Loss”. *World Development* 140.

Handcock, M. S. and M. Morris(1998). *Relative Distribution Methods*. American Sociology Association 28 : 53~97.

Hoynes, H., D. L. Miller, and J. Schaller(2012). “Who Suffers During Recession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6 (3) : 27~47.

ILO(2020). *ILO Monitor : Covid-19 and the World of Work*. Fourth Edition.

_____(2021). *ILO Monitor : Covid-19 and the World of Work*. Eighth Ed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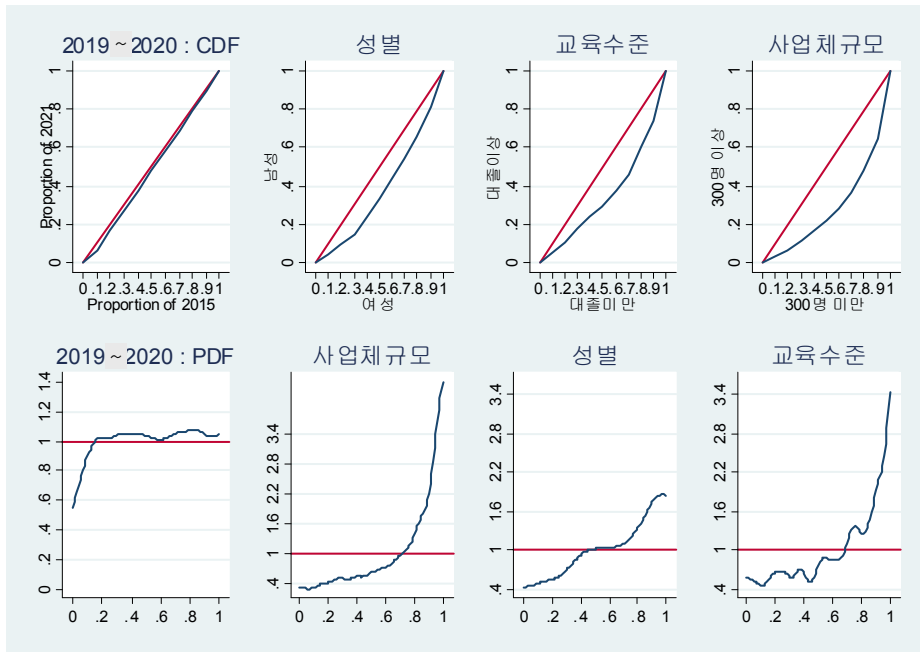
Jann, B(2021). “Relative Distribution Analysis in Stata”. *The Stata Journal* 21(4) : 885~951.

World Bank(2022). *Global Economic Prospects*.

[부록] 주 40시간 근로 가정 코로나 전후 상대분포 분석

부록에서는 ‘1주간 근로시간 수’ 문항을 이용하여 주 40시간 근로를 가정한 월평균 임금을 계산하여¹⁾ 코로나 전후인 2019년과 2020년의 상대적 분포분석과, 2020년 코로나19 직후 시점 내 성별, 교육수준별, 사업체규모별 상대적 분포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제시한다.

[부도 1] 추가적 분석 상대 임금분포 : 주 40시간 근로 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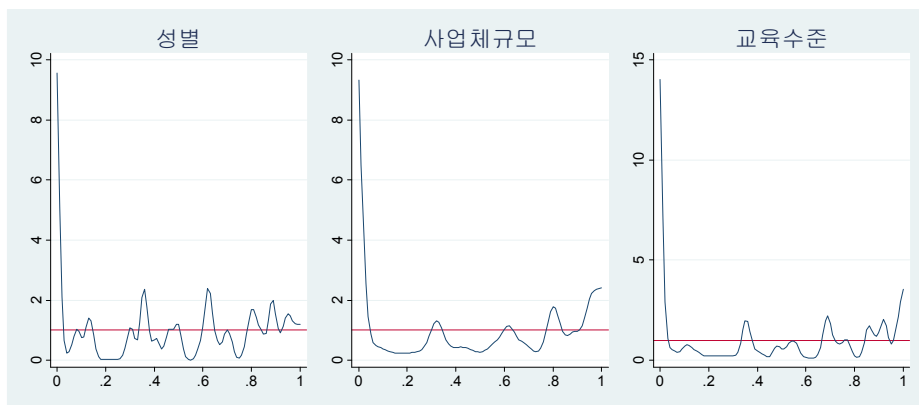


1) 주 40시간 근로를 가정한 월평균 임금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frac{\text{월 평균 임금}}{\text{1주 근로시간} * 4.345} \times (40 \text{ 시간} \times 4.345), 4.345 = \frac{365}{12 \times 7}$$

〈부표 1〉 MRP 지수 : 주 40시간 근로 가정

	2019~2020	성별	기업규모별	학력별
MRP	0.0416**	0.1862***	0.3669***	0.3257***
LRP	0.1388***	0.2448***	0.4716***	0.4094***
URP	-0.0556***	0.1276***	0.2623***	0.2420***



CDF와 PDF 그래프, MRP 지수의 통계적 유의성 및 방향성은 본문과 유사하다. 즉,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가정하면 역시 코로나19 이전 시점인 2019년에 비해 2020년 청년 근로자 임금의 감소는 없었으나, 양극화지수는 양의 값(+)을 나타내 양극화의 심화를 나타낸다. 특히, LRP 지수의 양의 값(+)이 전체적인 MRP 지수에 기여하고 있어, 하위 계층에서 양극화가 전체적인 양극화 심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점 내 분포 역시 성별, 사업체 규모별, 교육 수준별 임금격차 모습과 방향성이 본문의 논의와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COVID-19 Shock and Wage Inequality of Young Workers: Relative Distribution Approach

Lee, SeongHo · Min, Insi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wage distribution of young workers during the COVID-19 disaster from the 2016~2021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EAPS) data by applying relative distribution analysis. The results of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distribution of wages between time points, there was no negative impact such as overall decrease in overall income among young workers in spite of COVID-19. We find that the deepening of polarization in the lower classes contributed to the overall polarization. Secon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wage distribution within a time period,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large wage gap among young workers by gender, company size, and educational background, while the polarization within each group was more severe among men, large corporations, and those with a college degree or higher. This polarization is found to be largely contributed by low-wage workers in each group overall. The research results suggest the necessity of preparing policies for adventures and challenges of youth in times of disaster such as COVID-19, as well as various studies and policy discussions to resolve the polarization and income inequality of young people living in the era of COVID-19.

Keywords : COVID-19 pandemic, wage inequality, relative distribution, median relative popularization index